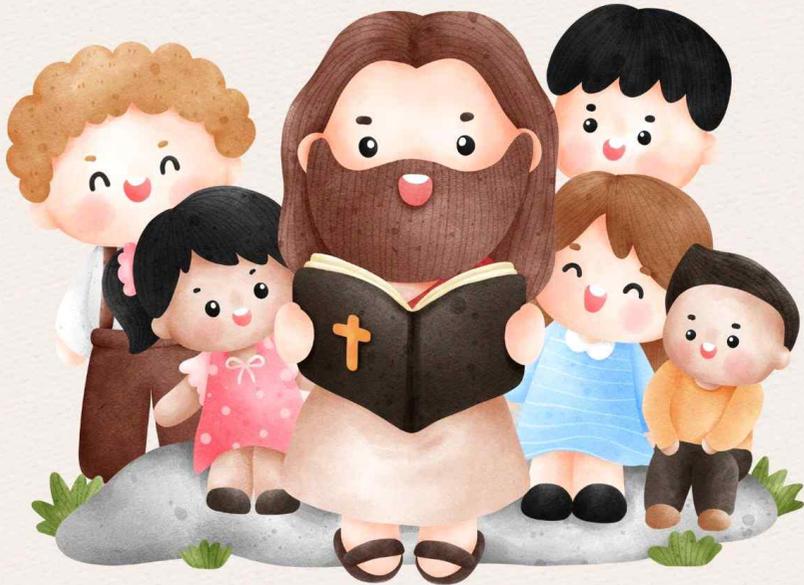




## 가정

#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 설교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처음 보는 장소에 가면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낯설어서 조금 떨릴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렘을 포함한 열 명의 정탐꾼은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돌아왔어요. 포도송이는 “우와, 정말 크고 맛있겠다!” 하고 모두를 설레게 했지요.

하지만 몇몇 정탐꾼은 “땅이 너무 넓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키도 크고 무서워 보여요” 하고 두려워했어요. 높은 미끄럼틀 앞에서 “무서울 것 같아…” 하고 주저앉은 우리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갈렘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이 땅도 문제없어요!” 하고 외쳤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요,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용기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새로운 일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갈렘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용기를 주시며, 언제나 우리 곁에 계세요. 학교에서 새 친구를 만날 때나, 높은 줄넘기를 시도할 때도 하나님 손을 꼭 잡고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부터 작은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듯 시도해 보고, 무서울 때마다 “하나님, 제가 무서울 때도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